

LG상사, 필리핀 가스전 시추 참여

말람파야 프로젝트 지분 4.9% 인수 ... Shell 및 ChevronTexaco 주축

필리핀의 국영 에너지회사 PNOC-EC는 3월28일 필리핀 정부의 민영화심의회가 LG상사 주도의 한국기업 컨소시엄에 45억달러의 말람파야 가스 프로젝트 지분 중 4.9%의 매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신화 파이낸셜 네트워크(XFN)가 보도했다.

PNOC-EC는 이사회와 국영 필리핀 내추럴 오일도 지분 매각 승인사실을 증권거래소에 밝혔으나 매각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LG상사 주도 컨소시엄은 한국가스공사, 대성산업, 서울도시가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남중국해상에 위치한 말람파야 가스전은 루손섬의 몇몇 발전소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매각대상 지분 외에 말람파야 가스전 지분의 90%는 Shell과 미국의 Chevron Texaco 보유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3/29>